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김태진 하상바로, 김예중 안나마리아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210 봉헌금 : \$206 합계 : \$416
다음 주 미사 독서: 이규희 스테파노, 한지영 크리스티나	
금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다음 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금주 미사해설: 최고은 소피아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봉헌봉사: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다음주 봉헌봉사: 김태진 하상바로
회 계: 심윤필 베르나르도, 한진 베드로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친교실 정리: 1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8 월 24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 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9 월 1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8 월 31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파견하시며 당신의 생명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물며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관계의 출발점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고 하셨듯이, 빵 안에는 예수님의 수난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주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눌러 짜는 아픔의 과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헌신적인 삶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사셨던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면 빵과 포도주의 신비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그릇에 담겨진 사랑은 남에게 아무리 퍼 주어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로
(608) 628-7977

연중 제 20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8월 18일

<제 1 독서> 잠언 9,1-6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15-20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 ○ 네 혀는 악을 조심히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시작:62 봉헌:221 성체:167 파견:400	



‘예’와 ‘아니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루르드의 강변 동굴에 뿔감을 주우러 온 14살의 베르나데트 앞에 ‘이 세상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함께 묵주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발현했을 때 소녀가 이름을 묻자 여인은 “나는 무염시태(無染始胎:원죄 없이 잉태됨)이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자신이 성모님임을 밝혀 오랫동안 가톨릭 교리에 있어 논쟁거리였던 성모님만은 원죄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본성으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잉태되었음을 정의(定義)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발현일인 2월 25일에는 자신이 가리킨 곳을 파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씻도록 하셨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정신 없이 샘을 파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죄(罪)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류의 어머니 하와’(창세 3,20)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같이”(로마 5,12) 성모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로마 5,21) 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 중에 태어났으며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로 인해 ‘죄의 노예’이며 베르나데트가 샘을 파면서 깨달았던 비참하고 ‘슬픈 죄인’인 것입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는 뱀(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으로부터 금지된 열매를 따 먹습니다. 하와가 원죄를 짓는 과정을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①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② 과연 먹음직하고 ③ 보기에 탐스러울뿐더러 ④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⑤ 그 열매를 따 먹고 ⑥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창세 3,6) 인간이 지지르는 모든 죄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혹에 넘어가 그 죄를 응시하는 첫 발견 단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먹음직스럽다. 화려하다. 향기롭다. 감미롭다. 죄는 본능적인 감각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후에는 맹렬한 상상이 일어나고 쾌락에 대한 기대감이 융솟웁습니다. 이 과정을 「준주성범」은 “처음에는 마음에 단순한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는 상상이 일어나고, 쾌락이 생기고, 잇따라 악한 충동(衝動)이 발하고 마침내는 승낙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가 느낀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다’는 느낌은 악의 논리입니다. 결정적인 악의 정당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나마 유혹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만, 딱 이번 한번뿐인데, 인생은 원래 즐기는 거야, 사랑은 불나비아 라는 식의 악의 논리는 여지없이 충동적인 만용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열매를 따 먹고 남편에게도 따 줌으로서 악은 습관화(중독)되고 전염되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그 여인을 범한 것’(마태 5,28 참조)과 같으니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죄의 독화살이 초기 단계인 ‘음란한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단호히 빼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에페 5,16) 주님의 말씀대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마태 16,4)입니다. 이 악하고 절개 없는 시대에 주님은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 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라고 경책하고 계십니다. 악의 논리는 교묘합니다. ‘예’할 수도 있고 ‘아니요’할 수도 있다고 우리를 혼란 시키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애매한 제 3의 무엇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제 3의 선택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원죄 없이 잉태된 단 한 분인 성모마리아님. 광복절이자 성모승천 축일을 맞을 이때, 제 마음의 동굴에도 샘물 하나를 마련해 주시어 이 불쌍한 죄인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굶임없이 제 발꿈치를 물려하는 간교한 뱀의 머리를 짓밟아’(창세 3,15 참조)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 성령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

十 공지사항

1. 다음 주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구역장, 성모회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 2012 신입생 환영회 공고
 - 일시: 8월 25일 오후 12:30 - 5:00
 - 장소: Humanities building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손동훈 요한세례자신부 | 인천교구 김포성당 보좌

만일 인간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노동할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과 식사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겐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의 또 다른 이유는 식사를 통해 얻는 에너지로 다른 이들, 내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면 헛된 나의 욕심을 충족하기 쉽지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면 그 행위는 나눔이요,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도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과 음식을 나누셨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빵,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살아 있는 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빵이 되었습니다. 천교와 구원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써 받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느님과 마주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단순한 빵으로 보이겠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똑바로 살아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응답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 신앙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빵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빵이 되어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삶을 닮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이야말로 독서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고마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빵으로 내려오십니다. 주님을 받아 모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청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